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72)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18강 붓다, 세존, 여래는 같은 분들인가

수보리가 일어나 "합장 공경하면서, 붓다(佛)께 사죄였다. '희귀한 일입니다. 세존(世尊)이시여, 여래(如來)는 보살들을 잘 지켜주시며, 또한 잘 이끌어 주십니다.' 而白佛言, 希有世尊, 如來善護念諸菩薩, 善付囑諸菩薩.

붓다
오늘은 여기 등장하는 배역들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동안 늘 독송하던 것이지만, 누가 누군지 몰라 답답했던 분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보리는 '붓다'를 향해, '세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래'께서는 하고 있는데... 이 세 분은 같은 분입니까, 서로 다른 분들입니까.

'붓다'는 '깨달음을 얻은 분'이라는 뜻이고, '세존'은 '세상(世)에서 가장 고귀한(尊) 분'이라는 뜻입니다. 붓다는 산스크리트 buddha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한자로는 불타(佛陀)로 음역되었다가, 줄여서 불(佛)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비해 세존은 의미를 살린 번역입니다. 두 용어의 성격이 전혀 다르지요.

지금 맥락에서 '붓다'는 객관적 호칭인

데 비해, '세존'은 앞에 선 분을 향해 올리는 존칭이지만, 가리키는 대상은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래는 무엇입니까. 이 말을 하자면 곡절이 좀 복잡합니다. 우선 붓다가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라는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요컨대 깨달은 사람은 다 붓다입니다.

물론, 기원전 6세기에 석가족의 왕자로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고 불교의 복음을 열었던 창시자 고타마는 한 분이지만요.

불교는 그 '깨달음'을 그러나 독점하지 않습니다. 그게 위대하고도 위대합니다. 고타마 붓다는 자신이 특별한 은총이나 선택에 의해 깨달음을 점지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그 길을 열었다고 믿고, 그것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열려 있다고 말한 점에서 아무런 특권 의식이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처음이 아니다. 나 이전에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길은 늘 옛길이었다."

불교는 그 말에 따라 이르면 붓다들의

주기를 계산하고, 왔다 간 분들의 계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금강경> '제10장 잠입정도분(莊嚴淨土分)'을 들추어 보십시오. 거기 연등불(燃燈佛)이 등장하고 있지요. 연등불은 고타마 붓다의 바로 앞 전임자 붓다입니다. 고타마 붓다는 그분의 처소에서 오랫동안 법을 익히고 수많은 세월을 거친 후, 새로운 붓다로 등장합니다.

마다하고, 굳이 이 더러운 땅 예토(穢土)로 강림하셨도다."

이 간절한 비원은 그분이 가시는 걸음도 차마 '그냥 그렇게' 보내드리지 못합니다. "그분은 우리네 중생들을 일깨우기 위해, "올바른 길을 밟고 진리를 향해 가셨다"고 말합니다. 올바른 길이란 구체적으로, 사정제의 마지막 진리, 구원에 이르는 혼련인 팔정도(八正道), 줄여 삼학(三學)을 일컫는 것이겠습니다.

니다. 당연히 붓다 이후에도 수많은 여래가 와서 붓다가 되었고, 지금도 그분들이 지구촌 여러 곳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여래들이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며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몸과 지닌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이지요.

<금강경>은 말합니다. 그 수많은 여래들이 진리를 향해 발심하고, 사람노릇을 하고자 분투하는 정신의 영웅들을 보호하고 이끌어주고 있다고요...

했지요. 저번 기원정사의 설화에서 그의 주저와 두려움에 적어준 적이 있습니다.

불성(佛性)

"그는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둠 속에서 몇 번을 망설였습니다. 한 걸음을 내디디면 다시는 이전의 익숙했던 삶으로 돌아올 것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야차 시바카가 조용히 속삭입니다. '코끼리와 말, 나귀 수레 백대도, 보석 귀고리로 장식한 수백명의 여인들도, 네가 내딛는 한 걸음의 16분의 1의 가치도 없다. 나아가라, 장자여. 나아가라. 물러서지 마라!' 드디어 수닷타 장자는 인디아나 존슨의 해리스 포트처럼, 짙게 앞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때 보이지 않던 길이 생겨 자신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여래는 어디 있습니까. 정말 여래(如來)를 본 사람이 있거나 합니까. 도대체 어디에 계시어, 이 작은 나를 지켜주고 이끌어 주고 있다 하시지는 것입니까.

기독교의 비유를 빌리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존재를 느끼고, 또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래들의 보호는 기실 자기 내부에 있는 불성의 다이아몬드가 가진 힘입니다. 자기 속의 불성과, 이웃 속의 불성, 그리고 우주에 평탄한 선한 힘들은 서로 연한 연기(緣起)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래께서 오고 가기 전에, 그분은 이미, 그리고 늘 여기 계시다고 하겠습니까. 반대 믿고 의지할 생각 마십시오. 여래는 오직 내 마음 속에 있고, 길도 또한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금강경> 제 29장 위의정분(威儀寂靜分)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래께서는 이렇게 오시지도, 그렇게 가시지도 않습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미, 그리고 늘 여기 계시는 여래들

여래

그래서 붓다는 "이 땅에 왔다가 가고, 또 다시 오고 가실 분"입니다. 그래서 여래(如來)라고도 부릅니다. '오시고 또 가시는'의 뜻을 다 적자면 '여래여거(如來如去)'인데, 너무 길어 여래로 줄여 부릅니다.

선사라면 여래가 "그냥 이렇게 왔다가 갔다"고 말하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바람처럼 흔적 없이, 목적 없이 때가 되면 펼쳐져 버리고, 때가 되면 인연따라 떠나는 결립없는 삶을 이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이 오고감에 무슨 토를 달거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아주 싫어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스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핀 야부 또한 바로 그 경계를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중생들인 우리는 그렇게 무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오셨다. 사바에 고통받는 우리네 속세의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천상의 영원한 축복을



호념(護念)

여래는 붓다처럼 한 분뿐이 아니라 여러 분입니다. 기원전 6세기 사키족의 왕자로 태어나 출가, 고행하여 보리수 아래 깨달음을 얻고, 40여년 법의 바퀴를 굴리다가 입적하신 그분, 고타마 붓다는 사실은, 위에서 말했듯이 줄줄이 이어진 그 수많은 여래들의 행렬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붓다 이전에만도 28명이 있었으니, 등등 설은 본분합

여래는 바로 그 사람들, 진리를 향해 발심하고, 사람노릇을 하고자 분투하는 정신적 영웅들, 즉 보살(菩薩)들을 보호하고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문은 '호념(護念)'이라고 불렀습니다.

호념(護念)이란 "늘 곁에서 지키며, 이들을 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길, 진리를 향해 내딛는 걸음은 정말 외롭습니다. 수닷타 장자(須達)도 그러

주장사파라...

94 법안 문익 선사사의 '마음'



조태호

Comic strip panels with dialogue about Buddhist concepts like '마음' (mind) and '법안' (Dhamma). Panels include characters like Sanggyeong and Hyeongeom, and a monk named Beom-an.

법안문익 (法眼文益 : 885-958): 법안종을 일으킨 송나라 고승. 지장성 출신으로 <종문십관론>을 지었음.

네티즌 교리문답

세계(世界)의 불교적 의미는?

우리 중생들은 '세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국경과 민족을 초월한 하나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럼 세계란 말의 불교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계로 가는 보살)

답1: 우리에게 세계는 지구를 중심으로 한 공간적 개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과학이 발달하며 이 세계라는 개념이 우주로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우리에게 세계는 우리가 존재하며 일상을 영위하고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을 의미하고 있지요.

하지만 불교에서 세계의 개념은 다릅니다. 현상적으로 나고 죽고 멀하는 현상계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불교에서는 세계를 설명할 우주 성립구조를 수미산 설에 의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미산을 중심으로 아홉 개의 산과 여덟 바다가 있으며 다시 사해와 해 달을 포함한 단위를 일세계라고 합니다. 일세계를 합친 것을 소천세계(小千世界) 이를 천개 합친 것을 중천세계(中千世界) 이를 천개 합친 것을 대천(大千)세계라고 하지요. 대천세계는 소 중 대의 천 세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삼천대천세계라고도 합니다. 불교에서 세계란 인간의 능력으로 환산할 수 있는 시간의 개념을 훌쩍 뛰어넘어 있지요.

그만큼 광오하고 무량한 시간과 공간적 개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광오한 의미를 가진 세계는 본래 부서질 장소라는 뜻을 지니고 있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세계를 무상(無常)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멘)

답2: 시각적으로는 나고 멀하고 변화가 있고 공간적으로는 한정된 장소를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엄경>에서는 세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世)는 변하여 흐르는 것이고, 계(界)는 방위이니 남북서동 북남서북 상하가 계이고 과거 현재 미래가 세계이니라."

또한 불교에서는 세계를 유정(有情), 무정(無情), 기(器) 세계로 나눕니다. 유정세계란 주로 산하대지인 시간만의 세계를 세계라고 일컫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세계는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공간적 개념의 한정된 공간이었듯이 불교에서도 세계는 모든 존재의 변화를 상징하는 시간과 공간을 함축한 개념이지요. (시공초월)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Crossword puzzle grid with numbers 1-11 and a 26-letter answer.

상식퍼즐

1. 앞의 자리에서 휘둘러 쓴 글씨나 그림 2. 불교의 삼신불 가운데 하나로 우주의 진리를 인격화한 부처 3. 자연주의 채색기법을 도입한 몽크의 대표작 4. 용량의 단위로 1입방 데시미터를 이룸 5. 은혜를 입은 고마움이 뼈에 깊이 새겨져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르는 한자성어 6. 동물을 의인화한 이야기로 인간세상을 풍자한 고대 그리스인.

세로

1. 석가모니의 가계와 그 일대기를 기록한 책으로 수양대군이 간행 7. 조계종의 사법기관은 호계원, 검찰기관은 〇〇 8. 석가모니 대비에서 나온 손가락뼈 9. 역대 국왕의 시문, 서화, 고명 등을 보관·관리하던 곳 10. 형제간의 나이 간격 11. 고려시대 공주를 중심으로 일어난 민중봉기, '〇〇 망소의 난'.